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및 그릿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박창승, 고영주*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Gri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hang Seung Park, Yeong Ju Ko*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 2학년 1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3.47점, 셀프리더십은 3.47점, 그릿은 3.81점, 대학생활 적응은 3.26점이었었다. 대학생활 적응과 비판적 사고성향($r=.41, p<.001$), 셀프리더십($r=.56, p<.001$), 그릿($r=.72,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학업수준, 비판적 사고성향, 그릿이었으며 설명력은 58.0%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본연구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gri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76 sophomore nursing student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June 20th to 30th,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The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47, self-leadership was 3.47, grit was 3.81, college life adjustment was 3.26.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justmen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41, p<.001$), self-leadership ($r=.56, p<.001$), and grit ($r=.72, p<.001$). Factors influencing the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included satisfaction of major, academic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grit. This model explained 58.0%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refore, in enhancing the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refl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s : Thinking, Leadership, Adjustment,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Yeong-Ju Ko(Cheju Halla Univ.)

email: yjko@chu.ac.kr

Received July 7,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Revised July 19,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인으로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다[1]. 그러나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적인 변화와 대학생활에서 요구되는 학업, 인간관계, 진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 특히, 간호학과를 선택한 다수의 학생은 간호학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취업률이나 타인의 권유로 인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3], 타 전공 대학생보다 학업량이 많고 학업 난이도도 높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4].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인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에 비해 임상실습을 통해 형성되는 간호사의 이미지나 간호에 대한 가치관 성립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 바람직한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환경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6] 대학생활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은 대학생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졸업 후 상황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셀프리더십은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해 보상과 반성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또한 셀프리더십은 외부의 통제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율성이 강조된 리더십이다. 학습과 교육을 통해 발전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은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요소이다[10,11]. 특히 셀프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12]. 비판적 사고성향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셀프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다[8,12].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로 이끄는 변수임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실제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학업 지속 및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것이 있다[13]. 그것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한 일관된 관심,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14]. 선행연구에서 그것의 수준이 높은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졸업할 확률이 높고, 간호사의 경우 그것은 직무몰입을 높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과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95 예측요인 10개를 적용했을 때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172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설문지 189부를 배부하였고, 18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하여 총 176부(97.7%)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6]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Yoon[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17]이 개발한 RSLQ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등[18]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등[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87,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3 그릿

그릿은 Lee, Joe, Kwon과 Song[19]이 개발한 그릿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한 열정과 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등 [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4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Jeong과 Park[20]이 개발한 대학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g과 Park[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C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4348-20190520-HR-003-0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동의서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서면으로 공지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개인 연구 번호를 부여하고 보관하였으며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응답 소요 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 및 대학생활 적응은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15세로, 성별은 여학생이 141명(80.1%), 남학생이 35명(19.9%)이었다. 입학 동기가 '높은 취업률'이 76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수준은 '중'이 129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이 88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 만족도도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이 94명(53.4%)이 가장 많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 대학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47±.3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열정/호기심 3.42점, 자신감

3.23점, 체계성 3.24점, 지적 공정성 3.00점, 건전한 회의성 4.01점, 신중성 3.48점, 객관성 3.92점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평균 3.47±.4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며 행동중심 전략 3.63점, 자연보상 전략 3.21점, 건설적 사고 전략 3.32점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평균 3.81±.4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인정받음 인식 4.02점, 중요성 인식 4.04점, 의미부여 인식 3.67점, 자기동기 부여 3.59점, 흥미 유지 3.60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 3.26±.4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3.04점, 학업활동 3.74점, 진로준비 2.83점, 개인심리 3.62점, 사회체험 3.0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6)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Gender	Male	35 (19.9)
	Female	141 (80.1)
Age (year)		22.15 ± 4.18
Motivation for nursing	High employment rate	76 (43.2)
	Recommendation	44 (25.0)
	Voluntary	35 (19.9)
Academic achievement	Service	21 (11.9)
	High	24 (13.6)
	Medium	129 (73.3)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Low	23 (23.1)
	Satisfied	65 (36.9)
	Moderate	88 (50.0)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action	23 (13.1)
	Satisfied	72 (40.9)
	Moderate	94 (53.4)
	Dissatisfaction	10 (5.7)

Table 2. Participa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Gri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176)

Variable	Categories	Mean±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tal	3.47±.36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42±.62
	Self-confidence	3.23±.67
	Systemicity	3.24±.55
	Intellectual fairness	3.00±.64
	Health skepticism	4.01±.46
	Prudence	3.48±.55
	Objectivity	3.92±.52

Self-leadership	Total	3.47±.43
	Behavioral-focused strategies	3.63±.47
	Natural reward strategies	3.21±.55
	Constructive though pattern strategies	3.32±.54
Grit	Total	3.81±.48
	Feeling valued	4.02±.60
	Perceiving priority	4.04±.53
	Finding meanings	3.67±.66
	Motivating oneself	3.59±.57
	Having interest	3.60±.63
College life adjustment	Total	3.26±.46
	Interpersonal relation	3.04±.75
	Academic activity	3.74±.52
	Career presentation	2.83±.62
	Personal psychology	3.62±.65
	Experience society	3.00±.7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6, $p<.001$). 사후 검정결과 학업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중'과 '하'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높았다.

셀프리더십은 학업수준(F=6.75, $p=.002$)과 전공 만족도(F=10.2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학업 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중'과 '하'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았다.

그릿은 성별($t=2.07$, $p=.039$), 학업수준(F=12.78, $p<.001$), 대학생활 만족도(F=8.30, $p<.001$), 전공 만족도(F=19.2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 높았으며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수준(F=16.40, $p<.001$), 대학생활 만족도(F=11.70, $p<.001$), 전공만족도(F=23.1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만족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높았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Gri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6)

Variable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Grit			College life adjustment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Mean±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3.49±.33	-0.28 (.778)		3.39±.49	1.12 (.263)		3.66±.52	2.07 (.039)		3.21±.51	0.74 (.457)	
	Female	3.47±.36			3.29±.42			3.85±.46			3.27±.45		
Motivation for nursing	High employment rate	3.48±.40			3.48±.47			3.85±.51			3.24±.50		
	Recommendation	3.47±.34	0.05 (.985)		3.48±.42	0.12 (.944)		3.80±.47	0.25 (.857)		3.30±.49	0.19 (.899)	
	Voluntary	3.46±.31			3.43±.41			3.76±.40			3.26±.38		
	Service	3.45±.31			3.45±.38			3.76±.40			3.24±.42		
Academic achievement	High ^a	3.72±.34			3.74±.45			4.18±.45			3.60±.43		
	Medium ^b	3.45±.35	0.86 (<.001)	a>b,c	3.45±.40	6.75 (.002)	a>b,c	3.79±.41	12.78 (<.001)	a>b>c	3.27±.42	16.40 (<.001)	a>b>c
	Low ^c	3.32±.31			3.30±.48			3.52±.61			2.88±.49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ied ^a	3.45±.35			3.53±.49	2.84 (.061)		3.96±.39			3.41±.41		
	Moderate ^b	3.50±.34	0.80 (.449)		3.47±.40			3.78±.51	8.30 (<.001)	a>c	3.25±.42	11.70 (<.001)	a>c, b>c
	Dissatisfaction ^c	3.40±.42			3.28±.36			3.52±.45			2.89±.57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a	3.54±.35			3.59±.46			4.00±.45			3.45±.41		
	Moderate ^b	3.41±.35	2.68 (.071)		3.42±.36	10.21 (<.001)	a>b>c	3.73±.38	19.27 (<.001)	a>b>c	3.18±.37	23.16 (<.001)	a>b>c
	Dissatisfaction ^c	3.49±.41			3.00±.48			3.16±.68			2.56±.71		

3.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대학생활 적응은 비판적 사고성향($r=.41, p<.001$), 셀프리더십($r=.56, p<.001$), 그릿($r=.7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r=.48, p<.001$), 그릿($r=.3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그릿($r=.6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Gri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176)

Variable	College life adjust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Grit
College life adjustment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1(<.001)	1		
Self-leadership	.56(<.001)	.48(<.001)	1	
Grit	.72(<.001)	.38(<.001)	.65(<.001)	1

3.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주요 변수인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을 회귀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 1단계 변수로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29.3%의 설명력을 보였고 유의한 변수는 학업수준(상), 학업수준(중), 전공만족도(만족), 전공만족도(보통)로 나타났다($F=13.11, p<.001$). 두 번째 모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 58.0%로 증가하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beta=.49,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beta=.28, p=.046$), 학업수준이 상인 경우($\beta=.17, p=.018$), 학업수준이 중인 경우($\beta=.15, p=.021$), 비판적 사고성향($\beta=.13, p=.022$)으로 나타났다($F=27.80, p<.001$).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는 1.46 ~ 8.31로 기준이 10이상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는 .12 ~ .68로 .10이상으로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bin-Watson 값은 2.05로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 on College life Adjustment

(N=176)

Variable	Model1			Model2		
	B	SE	$\beta(p)$	B	SE	$\beta(p)$
Academic achievement(high)*	.57	.11	.42(<.001)	.23	.09	.17(.018)
Academic achievement(Medium)*	.27	.09	.26(.003)	.16	.07	.15(.021)
Satisfaction of college life(Satisfied)*	.19	.11	.20(.096)	.12	.09	.13(.170)
Satisfaction of college life(Moderate)*	.10	.11	.11(.326)	.07	.08	.07(.403)
Satisfaction of major(Satisfied)*	.62	.16	.65(<.001)	.27	.13	.28(.046)
Satisfaction of major(Moderate)*	.45	.15	.48(.005)	.21	.12	.22(.098)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7	.07	.13(.022)
Self-leadership				.09	.07	.08(.233)
Grit				.48	.06	.49(<.001)
R ²		31.8			60.1	
Adj. R ²		29.3			58.0	
F(p)		13.11(<.001)			27.80(<.001)	

*Dummy variable: Academic achievement (0=low),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0=dissatisfaction), Satisfaction of major (0=dissatisfac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릿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Ko[21]의 연구에서의 3.55점과 비슷하며, Kang과 Kim[12]의 연구에서의 3.73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22]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Kang과 Kim[12]의 연구가 두 연구 결과에 비해 높은 것은 두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Kang과 Kim[12]의 연구에서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의 차이가 보였을 거라고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영역은 지적 공정성이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체계성이 3.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Kim[8]의 연구에서 지적열정/호기심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의 교류 및 의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임상경험이 부족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 방향 암기 위주의 학습보다는 창의적 사고, 통합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례 기반 학습이나 팀 기반 학습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업 수준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 및 간호학에 만족하는 학생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Kim[8]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전공만족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2학년 학생으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추측되나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Lee 등[11]의 연구에서 3.43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Kim과 Hwang[3]의 연구에서 3.51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되며 [10] 학년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결과 [11]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Lee 등[11]의 연구에서 1, 2학년은 306명으로 전체의 80.9%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며, Kim과 Hwang[3]의 연구에서 1, 2학년은 155명으로 전체의 49.3%로 연구대상자의 학년 수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어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위 영역으로 3가지 전략 중 행동중심 전략이 3.63점, 건설적 사고 전략이 3.32점, 자연보상 전략이 3.2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등[11]의 연구에서 행동중심 전략 점수가 가장 높고 자연보상 전략 점수가 가장 낮은 것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의미 있는 보상을 합

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행동적인 전략을 잘 실천하고 있으나 자기 일이나 과업에 도입하여 일이나 과업 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는 자연적 보상 전략 실천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 전략 중 행동중심 전략을 지속해서 유지하되 과업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자연적 보상전략 활동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업수준,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학업 성적,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Kim과 Hwang[3]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스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변화시키는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흥미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82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Jung과 Jeong[23]의 3.18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Jeong 등[15]의 3.12점보다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그릿 측정도구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을 측정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그릿의 개인적 요인과 관계 상황적 요인에서 그릿을 측정했기[19]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5개의 하위 영역 중 중요성 인식, 의미부여, 흥미유지 요인은 개인적 요인에 속하며, 인정받음, 자기동기부여 요인은 관계상황적 요인에 해당된다[19]. 본 연구 대상자의 하위영역은 중요성 인식이 4.0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동기 부여가 3.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 학생들이 역할모델을 통해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개선하는 상황 경험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그릿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모델을 통해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나 졸업생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여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성별, 학업 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동일한 도구가 아니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과 Jeong [23]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점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그릿을 측정한 도구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동일한 도구를 통한 반복 연구를 통해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이었다. 간호학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Ko[24]의 연구에서 3.30점,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Kim과 Lee[25]의 연구에서 3.32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Ko[24]의 연구에서 2학년이 96명으로 60.8%로 분포하고 있고 Kim 등[25]의 연구에서 2학년이 67명으로 54.9%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Ko[24]의 연구에서 1학년 3.37점, 2학년 3.25점으로 1학년이 2학년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 Kim 등[25]의 연구에서 2학년 3.31점, 3학년 3.29점, 4학년 3.71점으로 4학년이 2, 3학년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 이는 1, 4학년이 2,3학년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26]. 1학년은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 2학년에서는 1학년에 비해 전공수업이 많아지고 3학년에서는 전공수업과 임상실습 등으로 인해 자기관리가 소홀하지만, 4학년은 졸업시점을 앞두고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영역은 학업활동이 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로준비가 2.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Han[27]의 연구에서 학업활동이 가장 높은 결과와 일치하나 대인관계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Han[27]의 연구 대상자가 3, 4학년에 반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2학년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업에 충실하고 간호학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본인의 진로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 동안 본인의 진로에 대한 시간을 갖고 탐색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수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성별, 종교, 대인관계, 학교성적, 전공선택 이유,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Ko[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과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이해,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그것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그것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학생활 적응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에서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 적응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9]에서 그것이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이 상호 관련성 있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8], 비판적 사고와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토론 및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교수학습방법과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그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만을 투입한 1단계 위계에서 대학생활 적응을 29.3% 설명하였는데, 학업 수준이 상, 중에서, 전공만족도에서 만족, 보통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과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으로 대학생활을 잘한다는 선행연구[8,24]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이유는 높은 취업률이나 타인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3] 간호학과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간호학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수법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 회귀모형에서 일반적 특성만 투입한 모형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 변수를 투입한 모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그것이 대학생활 적응의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을 추가로 2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그것은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Duckworth[30]에 의하면 그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학 및 학과에서는 효과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간호학에 대한 관심, 자신의 목표

를 설정하고 목표가 중요하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비인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 조절력을 통해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계속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활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기에 추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임상실습 전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그것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 개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 수준, 전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과 그것이며,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54.7%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할 뿐 아니라 추후 대학생활 및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년 및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M. J. Jo,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182-190, May,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82>
- [2] J. H. Nam, H. S. Park, "The impacts of perceived stress and self-compassion on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1, pp.67-77,

- Feb. 2020.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0.26.1.67>
- [3] K. H. Kim, E. H. Hwang,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436-445, Feb.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2.436>
- [4] H. S. Cha, "Influence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8, pp.381-391, Aug.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8.381>
- [5]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5, No.4, pp.409-419, Dec. 2006.
- [6] K. O. Hong, H. W. Kang,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attachment to parents, their self-efficacy for academic attainment to college life adaptation", *The Association of Young Child Studies*, Vol.13, pp.133-144, Dec. 2010.
- [7] K. H. Kim,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3, pp.301-313, Mar.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3.301>
- [8] M. S. Kim,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2, pp.184-193, May. 2017.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7.23.2.184>
- [9] J. S. Le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253-260, Oct.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53>
- [10] C. C. Manz, H. P. Sims,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 Dynamic*, Vol.19, No.5, pp.18-35, Jan. 1991.
- [11] M. O. Lee, M. Y. Lee, S. Y. Ki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3, pp.417-425, Aug. 2015.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5.21.3.417>
- [12] H. S. Kang, Y. Y. Kim,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617-625, May.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5.617>
- [13] Y. S. Kim, K. S. Lee,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between grit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7, No.2, pp.144-151, May. 2021.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1.27.2.144>
- [14] A. L. Duckworth, P. D. Quin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No.2, pp.166-174, Feb. 2009.
DOI: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15] J. Y. Jung, Y. S. Seo, J. H. Choi, S. H. Kim, M. S. Lee, "The influence of grit on turnover inten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the mediating effect of job involv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9, No.2, pp.181-190, Apr. 2019.
DOI: <https://doi.org/10.4040/jkan.2019.49.2.181>
- [16] J. Yu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p33, 2004.
- [17] J. D. Houghton,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17, No.8, pp.672-691, Nov. 2002.
DOI: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18] Y. K. Shin, M. S. Kim, Y. S. 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Vol.6, No.3, pp.313-340, Nov. 2009.
DOI: <https://doi.org/10.16983/kjisp.2009.6.3.377>
- [19] I. S. Lee, S. Y. Joe, O. Y. Kwon, J. Song, "Measuring grit of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cadets", *Korean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36, No.1, pp.35-47, Mar. 2018.
- [20]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1, pp.69-92, Oct. 2009.
DOI: <https://doi.org/10.17927/tkiems.2009.21.2.69>
- [21] C. S. Park, Y. J. Ko,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0, pp.68-75, Oct.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0.68>
- [22] S. K. Cha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8, No.1, pp.71-78, Feb. 2011.
- [23] M. R. Jung,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pp.414-423, Jun.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 [24]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0, pp.280-291, Oct.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280>
- [25] J. K. Kim, W. J. Kim, S. J. Lee,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7, No.7, pp.120-126, Jul.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7.120>
- [26]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227-236, May. 2015.
DOI: <https://doi.org/10.5977/jikasne.2015.21.2.227>
- [27] J. S. Han,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459-4466, Jul.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459>
- [28] M. 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560-568, Aug.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8.560>
- [29] S. J. Lee, J. Y. Park,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2, pp.269-276, Feb.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69>
- [30] A. L. Duckworth,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6. pp.1-352.

박 창 승(Chang Seung Park)

[정회원]



- 1996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

고 영 주(Yeong Ju Ko)

[정회원]



- 1900년 2월 : 한국대학교 한국대학원 한국학과 (한국학석사)
- 2002년 2월 : 한국대학교 한국대학원 한국학과 (한국학박사)
- 2003년 3월 ~ 2006년 2월 : 한국연구소 책임연구원
- 2006년 3월 ~ 현재 : 한국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관리